

## ❖ <동란의 시대>, 중세의 가을과 새로운 시작

### I. 17세기의 시작과 <동란의 시대>

#### 1. 17세기 이전의 동슬라브

##### 1)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 - 타타르 간섭의 종식(1480)과 중앙집권적 성장(16세기)

- 1240년, 몽고-타타르의 침략으로 키예프 루시 패망  
 - 당시 북동부의 블라디미르-수즈달과 공후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중심이 되어 동슬라브 전체의 대몽고 창구로 역할을 함.

- 1270년 경, 블라디미르-수즈달 공국에서 모스크바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함.

- 이후 세 명의 이반(Иван = 이오안Иоан)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공후를 배출하면서 모스크바는 점차 과거 키예프 루시 시대 키예프의 적자 전통을 계승하며 동슬라브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서서히 성장해 나가게 된다.

- 먼저, 1380년 돈 강 상류의 쿨리코보라는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Куликовская битва)에서 모스크바 공후 드미트리를 중심으로 한 루시 연합군은 타타르의 군대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후 동슬라브 세력의 중심은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공국으로 확고하게 굳어지게 된다.

- 이후, 이반 3세(1462~1505)와 이반 4세(1533~84) 두 이반의 치세 동안에 모스크바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게 된다. 북부의 상업 도시였던 노브고로드의 복속(1478), 타타르 지배의 완전 종식(1480),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녀 소피아 팔레오구스와 이반 3세의 결혼(1469)과 그로 인한 동방 기독교 세계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의 부상,<sup>1)</sup> 모스크바 공국은 물론 전 동슬라브에 적용될 루시 법전의 편찬과 개정(1497, 1550), 그리고 이를 통한 농노제의 정착과 전제정의 기초 확립, 비잔틴에서의 황제를 뜻하던 「케사르Caesar」라는 명칭을 차르(царь)라 하여 모스크바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 Grand Prince)에서 차르로의 즉위(1547) 등, 모스크바 공국은 키예프 루시의 전통을 계승하며 주변 동슬라브를 규합했고, 특히 이반 4세(이반 뇌제) 시기에는 16세기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세력으로 확장되어 갔다.

- 또한 타타르의 세력 근거지였던 카잔 한국(칸khan; 汗國)과 아스트라한 한국 등을 점령하며, 동쪽과 남쪽 지역으로의 출구를 확보했다.<sup>2)</sup> 이를 통해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1) <모스크바-제3로마> 설이라는게 있다.

2) 이 당시 키예프 루시의 서쪽 대부분, 즉 드네프르 강의 서쪽 영역인 오늘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지역은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의 영향과 지배를 겪고 있었다. 즉, 1667년 페레야슬라블 조약으로 드네프르 강 동쪽과 키예프가 상징적으로 모스크바의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기 이전까지 몽고-타타르 침략 이후 키예프 루시의 동슬라브는 크게 보아, 모스크바와 키예프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잠시 뒤 살펴보게 될 17세기 초반 <동란의 시기> 때에 이르러 폴란드, 또는 스웨덴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기 이전까지 모스크바 (대)공국은 소위 '서쪽' 세력과의 문화적 교류가 거의 전무했다. 또한 일종의 우회로라 할 수 있는 남서부의 초원지대까지 타타르의 한국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모스크바 (대)공국은 사실상 서구와의 교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셈이었다. 이런 서구와의 절연과 격리는 의외로 심각한 흔적을 남겼으니, 러시아 문화사에서 흔히 얘기되는 르네상스의 부재, 좀더 정확하게는 르네상스적 현상의 부재 또는 지체를 겪게 되었다. 환언하자면, 이는 중세 기독교 중심주의 전통의 종식과 인본주의적 가치의 중흥, 그리고 도시 상공업을 바탕으로 한 '시민' 계급의 생성과 축적 등이 부재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외로 간단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의 경우 (또 다시-) 고전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유산과의 단절을 비롯해 전제군주권 강화, 농노제 고

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예르마크(Ермак)를 대장으로 한 시베리아 원정대(1579~1582)가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사실상 식민지로 경영한 이 시베리아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점령지가 된 셈이었다.<sup>3)</sup>

## 2) 사회와 문화의 변화

- 몽고-타타르의 침입과 지배로 키예프 루시의 삶의 터전은 거의 대부분 철저히 파괴되었고 문화유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공후와 성직자, 지배층의 인적 타격이 특히 심해 문화 전승을 담당할 계층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시기(13세기~14세기 중반) 동슬라브인들의 삶 자체의 중심점이 된 것은 다름아닌 ‘수도원’이었다.

- 수도원은 교회, 학교, 병원, 시장, 대장간, 공작소, 곡식저장창고, 비밀문서보관소, 성화(이콘)제작소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동슬라브인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 그러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모스크바 (대)공국의 성장과 팽창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대외적 팽창이 이루어지던 시기, 문화와 예술은 통치자에 대한 ‘섬김’의 행위가 되었다.

- 승리자의 전승과 업적이 확산되고 계승되는 장으로서 연대기는 여전히 충실히 기록되었다. 이교도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한 비잔틴 제국의 멸망(1453)과 대비되는 모스크바의 타타르 지배 종식(1480)은 자연스럽게 정교 기독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 정교 성인과 고위성직자에 대한 찬양과 칭송은 개별 성자전과 성자전의 총집대성과 그 편찬사업으로까지 나타났다<성자 대일력 독본>(聖者大日歷讀本; Великие Минеи Четыи).

- 점차 확고해져가는 국가로서의 기반을 문화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전>(Судебник)의 편찬 역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문화의 영역에서 담당된 과업이었다.<sup>4)</sup>

- 또한 타타르와의 승전을 기념하는 여러 유사역사물이 나타나 다양한 ‘콘텐츠’와 ‘상상력’의 허용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 마지막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의 이반 4세는 자신의 정적이 된 안드레이 쿠릅스키(A. Курбский) 공작과 서로를 비난하는 격렬한 서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텍스트 역시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 이상, 타타르의 지배 시기 이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15~16세기 모스크바 (대)공국의 문화는 국가중심주의 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

작, 수공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층위에서 영향을 입게 되었다. 이는 당대로만 그치지 않고, 포르트 대체의 개혁과 개방 이후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러시아의 역사적 진로와 인류 발전의 정합성 경로의와 간극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논쟁 야기까지 출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러시아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되돌려 받게 된다. 또한 느슨했지만 통일체라는 인식은 안팎으로 갖고 있었던 키예프 루시 시대와는 다르게 모스크바와 키예프를 비롯한 그 서쪽 지역의 동슬라브가 400년이 넘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권에서 지내게 되어 결국 동슬라브의 분리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제국과 소비에트, 그 해체를 지나오며 오늘날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시 각각의 민족/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극복해야만 할 지난한 난제로 또한 남게 되었다.

3) 1648년에 시베리아 원정 선발대가 베링해협을 통과했고, 1689년에는 지금의 중국과의 국경 지대인 아무르강(흑룡강)에 도착하여 국경확정 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한편, 이때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게 노서아인들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한 군대 파견을 요청해왔고,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 사수 100명을 파견(1654, 58)해 청나라와 함께 노서아군에 맞섰다. 이를 우리는 <나선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건축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었다. 모스크바 크렘린의 증개축이 계속 이어졌으며, 특히 붉은 광장의 <성 바실리 대사원>은 카잔 한국 점령을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바실리(Василий)는 이반 4세의 아버지의 속명이자, 이반 4세의 세례명이다. 성 바실리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이 부분은 『이교리 원정기』에서 익명의 작가가 보여준 소위 ‘사회성’이라는 측면과 유사하며, 이후 러시아문학에서 큰 특징으로 자리잡은 이른바 “연단성”(演壇性; публицистика)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강력한 공식 문화는 그 성립과 거의 동시에 큰 위기를 겪으며, 사실상 일종의 ‘전환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전환기의 시작은, 많은 경우 그렇듯이 ‘혼란’과 함께 찾아왔다.

## 2. 17세기로 접어드는 모스크바 제국과 새로운 시작

### 1) 이반 4세 이후의 혼란과 보리스 고두노프의 통치

- 말년에 이르러 심각한 기행을 보이던 이반 4세가 드디어 죽고 나서(1584), 그의 아들 표도르(Федор)의 계위를 계승(1584~98)한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표도르를 대신해 그의 처남이었던 보리스 고두노프(Борис Годунов; 1552~1605)가 사실상의 차르로 모스크바 제국을 기민하게 통치하고 있었다.

- 그 무렵인 1591년 표도르의 동생인 디미트리(Димитрий)가 갑작스레 죽었다. 병약한 표도르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동생인 드미트리(디미트리)는 계위를 물려받을 적임이었다.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보리스 고두노프에게 자연스레 의혹의 눈길이 가게 되었다.

- 그러던 중, 1598년 표도르마저도 결국 죽게 된다. 이후 세습대귀족(보야르; бояре), 고위 성직자, 중앙과 지방의 고위관리, 모스크바 궁정귀족(дворяне),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신분제 의회격인 전국회의(Земский собор)에서 보리스 고두노프가 새로운 차르로 선출된다. 이후 그는 역시 급작스런 죽음(1605)을 맞이할 때까지 비황족출신으로선 유일하게 러시아 역사에서 최고지배자로 군림하게 된다.

- 그러나 1601~3년 사이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이 러시아 거의 전역을 휩쓸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민생이 극도로 힘들어지자 민중들 사이에선 통치자 보리스 고두노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즉, 그가 계위를 얻기 위해 왕자 디미트리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황족이 아닌 그가 황위에 올라 있는 것 또한 정통성없는 군주의 올바르지 못한 자리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 이때, 한 사나이가 자신이 죽은 줄로 알려진 디미트리 왕자라고 주장하며 나섰고(1604), 이 인물이 이른바 “가짜 디미트리”라고 이야기된다. 러시아의 혼란과 이를 틈탄 세력 확장을 노리던 이웃한 폴란드가 이 “가짜 디미트리”에게 군대를 주어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왔다. 1605년 초, 폴란드 군대와 가짜 디미트리는 보리스 고두노프에게 패배하게 되나, 보리스를 가짜 차르, 심지어 안티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던 당시 민중은 오히려 디미트리의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이 해 4월, 보리스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자 폴란드군과 디미트리는 별다른 저항없이 모스크바에 입성해, 결국 여름에 디미트리는 모스크바 제국의 계위에 올랐다.

- 그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디미트리를 앞세운 폴란드인들의 전횡과 러시아인들과의 모스크바에서의 충돌은 결국 디미트리를 차르로 속아주던 대귀족들마저 흥흥해진 민심을 핑계삼아 등을 돌리게 했다. 디미트리는 1년이 채 못되는 짧은 영화를 누리고선 1606년 5월, 처형되었다. 바로 이 무렵, 가짜 디미트리를 둘러싼 상황을 그린 작품이 푸쉬킨의 <보리스 고두노프>이다.

- 참칭자 디미트리가 죽고 나서 크렘린을 지휘한 인물은 대귀족의 대표적인 바실리 슈이스키(В. Шуйский; 1552~1612)라는 인물이다. 그러나, 슈이스키의 지배는 보리스 고두노프보다 더욱 나빴고, 한번 의심을 갖기 시작한 민중은 디미트리의 죽음에 대해 또 다시 의혹을 가졌다.

- 이듬해(1607), 슈이스키에 대한 농민반란 세력 등이 토벌되자마자, 두 번째 가짜 드미트

리가 또 나타났다. 작년에 죽은 디미트리는 실은 다른 인물이고, 자신은 겨우 몸을 숨겼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첫 가짜 디미트리와 결혼한 폴란드 공주는 뻔히 알면서도 그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아들도 낳았다.

- 이 제2의 가짜 디미트리 역시 폴란드 세력을 등에 업었고, 이번에는 폴란드 역시 신중한 정책을 펴 불필요하게 러시아 귀족과 민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폴란드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다. 1610년 경, 제2의 가짜 디미트리는 역시 스웨덴과 제휴를 맺은 슈이스키와 밀약을 통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양분해 지배하는 형국으로까지 치달았다.

- 이 즈음 두 번째 가짜 디미트리를 따르던 러시아의 대귀족들을 그에게 식상해 폴란드의 왕에게 밀사를 보내 디미트리를 제거하고 폴란드의 왕자를 직접 모스크바에서 모시고 싶다고 제의하게 된다. 호시탐탐 모스크바와 러시아를 노리고 있던 폴란드 왕은 흔쾌히 또 다른 디미트리를 버리고 자신의 왕자와 대군을 모스크바로 진격시키게 된다.

- 슈이스키는 스웨덴과 제휴했으나 폴란드군에게 격퇴당해, 결국 1610년 여름 모스크바는 폴란드인의 수중에 떨어졌다.

- 이런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던 러시아 민중은 모스크바 총주교는 ‘정교 신앙과 러시아 땅을 지키자’는 격문에 호응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외세와 대귀족에 맞서는 해방투쟁을 선포하고 선 해방군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 해방군은 중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폴란드 정예군에게 처참하게 격퇴당했으며, 심지어는 스웨덴마저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다시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왔다.

-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상인들이 그곳 상인 쿠지마 미닌(К. Минин)의 부르짖음에 호응해 자금을 각출하는 것을 계기로 제2차 국민의용군이 결성되었다. 수즈달의 포좌르스키 공후(кн. Пожарский)가 이끈 이 국민의용군은 1612년 10월, 마침내 폴란드 군을 몰아내고 모스크바를 되찾게 되었다.

- 이듬해인 1613년, 이반 4세기 세습대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전국회의>는 당시 유력한 대귀족(бояр)인 표도르 로마노프(Ф. Романов; 1554?-1633)<sup>6)</sup>의 아들 미하일 로마노프(М. Романов; 1596-1613~1645)를 새로운 차르로 선출하게 된다.

- 이로서 모스크바 제국은 862년 류릭(Рюрик)의 루시 땅 진출로 시작해 700년이 넘어 계승되어 온 류릭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로마노프 왕조는 1917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까지 300년을 지속하게 된다.

#### 참고문헌

권용(2005), 『모스크바에서 쓴 러시아, 러시아인』. 21-45쪽.

이무열(2009), 『러시아역사, 다이제스트100』. 73-122쪽.

---

6) 이 인물은 이반 4세의 아들 표도르의 이복 형제이며, 결국 이전 류릭 왕조의 방계가 되는 셈이다. 전국회의에서 그의 아들 미하일이 새로운 차르로 선출된 것 역시 이런 배경이 강하게 작용했다.